

근대 척독교본의 문장강화(文章講話)적 성격

- 위당 문장론의 영향과 『신체미문 시문편지투』의 「서한문강화략초」* **

홍인숙***

<차례>

1. 서론
2. 위당 정보의 서문 「서한문강화략초」 문장론의 배경
3. 「서한문강화략초」의 구성과 문장론
 - 1) ‘감정·표현·글’의 본질에 대한 기원적 사유
 - 2) 작문법의 이론화 및 체계화 지향
 - 3) 서간 장르의 당대성 및 진실성 강조
4. 결론- 위당 문장론의 영향과 「서한문강화략초」의 의의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근대 척독교본 『新體美文 時文편지투』에 실려 있는 「서한문강화략초」라는 글의 문장 지도 에세이적인 양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한문강화략초」는 기본적인 작문법과 작문 이론, 글의 사회적 역할과 의의에 대한 관점을 담은 문장론 텍스트이다. 이 글은 『시문편지투』를 단순한 서간 교본이 아니라 문장 지도서의 성격을 가진 책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시문편지투』에 실린 정보의 서문을 분석하여 그의 문장론에 영향을 받은 텍스트로서 「서한문강화략초」를 조명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의 서문을 살펴보았다. 이 서문은 「서한문강화략초」가 지향하는 문장론 및 서간론의 이상적인 방향성을 앞서서 하나의 완성된 실제 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문의 내용을 본격적인 문장강화적 성격의 텍스트

* 본 논문은 2022년 8월 19일 대동문화연구원 국내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

로 제시하고 있는 「서한문강화략초」는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은 총론격으로 언어와 문자, 글의 기원에 대한 독자적 에세이와 같은 성격이며, 2~4장은 글쓰기의 기술적, 형식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작문법 성격, 5~6장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론의 성격, 7~10장은 서간이라는 글의 양식적 특징과 형식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인 서간론의 내용이다.

이러한 「서한문강화략초」는 위당 정인보의 일정한 문화적 영향력 하에 쓰인 문장론으로, 체계적인 작문 이론과 서간론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글이다. 나아가 이 텍스트는 그것이 수록된 근대 척독교본 『新體美文 時文편지투』의 성격을 단순한 서간 문법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본격적인 문장강화적 성격을 가진 문장 지도서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 근대 척독교본, 문장강화, 『新體美文 時文편지투』, 근대 서간, 위당 정인보, 독본, 작문법, 문장론, 서간론

1. 서론

또 著者が 書翰文에 對한 講話를 窺해 붓치어 套式만 보일 뿐 아니라 運掉하는 方略과 展開되는 境界를 自己 見識에 미치는 데까지 여러 가지로 說明하여 아모조록 完備에 遺憾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¹⁾

窺에는 式辭禮辭를 添附한 것은 書翰과 社交 서로 相關이 만음을 생각함 이요 書翰文講話略抄라 하여 편지라는 것과 편지 쓸 때에 생각할 일을 말하는데 文章講話의 意思가 多少 석기여지라 하였다 本來 이 속에 잇는 글 가운데는 다만 편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讀方資料나 혹은 作文資料가 될 듯한 것도 있스니 그러케 보면 이 冊의 境域이 더 넓어질 것이다²⁾

1) 정인보, 「序」, 구자황·문혜윤 편, 『新體美文時文편지투』(1926), 도서출판 경진, 2011, 8쪽.

위 인용문은 1926년에 저술된 근대 척독교본인 『新體美文 時文편지투』에 실려 있는 위당 정인보의 서문과 책 저자의 서문 일부이다. 이들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의 끝에는 ‘서한문을 운도(運掉)하는 방략과 전개되는 경계’를 보여주며, ‘편지라는 것의 본질과 편지의 요소를 제시하는 문장강화적 성격을 가진’ 별도의 글 한 편이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은 『新體美文 時文편지투』(이하 『시문편지투』)에 별도의 문장론 에세이로 실려 있는 「서한문강화략초」라는 텍스트의 문장강화적 양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문편지투』는 언문일치를 향해 가는 국한문혼용체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또 당대의 청년 학생 지식인들의 정체성 담론을 보여주는 독본적 성격의 본격화라는 측면에서, 근대 척독교본이 다양하게 분기해 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³⁾

「서한문강화략초」는 이 책이 척독교본이면서 독본과 문장강화를 동시에 지향했던 복합적인 문장 지침서라는 독특한 위상을 한층 더 뚜렷하게 부각시켜 주는 텍스트이다. 이 글은 「서한문강화략초」라는 제목, 즉 ‘서한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문장 강의의 요약’이라는 뜻 그대로 전반적인 작문 이론과 서간론을 보여주는 독립된 글로서, 이 책의 문장 지도서적인 특성을 명시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20~30년대 근대 척독교본의 구성에서 서문, 발문, 부록들이 누락되고 서간문의 모범 예문만을 나열하는 식으로 일률화되고 단선화되는 경향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더욱이 본격적인 근대 작문서에서도 수사

2) 정인보 저, 「著者の 말」, 구자황·문혜운 편(2011), 위의 책, 10쪽.

3) 홍인숙, 「근대 척독집의 새로운 시도1- 『신체미문 시문편지투』」, 『한국 근대 척독서 연구』, 태학사, 2020. ; 홍인숙, 「근대 척독교본 『신체미문 시문편지투』에 나타난 1920년대 ‘청년 학생’ 정체성 및 관계성의 특징 연구」, 『동양고전연구』 89, 동양고전학회, 2022.

4) 1920~30년대에 출간된 대부분의 근대 척독교본은 국한문 편지 예문을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별로 나열하는 단순한 구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 척독교본은 예문으로 실린 서간문의 호칭, 인사 등 편지의 격식, 문체, 문형을 모방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학과 비유법에 대한 소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 글쓰기와 작문 이론 전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완결된 글을 따로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⁵⁾ 독자적 문장론, 서간론으로서 이 텍스트는 특별히 주목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강대학교 소장 원본 『시문편지투』 기준으로 224~241면까지 18쪽의 분량으로 실려 있는 장문의 논설인 「서한문강화략초」라는 텍스트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 텍스트의 지적 배경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위당 정인보 서문의 문장론과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서한문강화략초」의 구성 양상과 문장

로 했을 뿐 문장 작법이나 작문적 관점에서의 고려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5) 20세기 초반 근대계몽기에 글쓰기의 기본 방법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작문법 저서인 『실지용용작문법』의 경우 ‘총론(總論)’과 ‘정례(正例)’라는 목차를 통해 글쓰기 이론과 기법을 신고 있으나 이는 별도의 완성된 글이 아니라 전범이 되는 예시글을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지용용작문법』은 작문 이론을 설명한 상편과 실제 모범이 될 만한 글을 수록한 하편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작문 이론을 설명한 상편의 경우에도 작품 실례를 하나하나 제시해 두고 있다.’, 정우봉, 「근대계몽기 작문 교재에 대한 연구-『실지용용작문법』과 『문장지남』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8,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166쪽. ; 남궁원은 『실지용용작문법』의 총론과 정례가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했으나 교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구체적인 예시문이라는 점은 공통되게 지적하고 있다. ‘『실지용용작문법』은 글쓰기의 기본이론과 구성법, 표현 기교 등을 앞세우고 교재의 대부분은 문종별로 전범이 될 만한 각종 글들을 신고 있다.’, 남궁원, 「개화기 글쓰기 교재 『실지용용작문법』과 『문장지남』 연구」, 『한문고전연구』 12,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198쪽. ; 1900~10년대까지 근대 조선에 큰 영향을 끼친 일본의 작문서를 소개하고 있는 다음 연구에서도 작문이론이나 문장론으로서의 독립적인 글은 찾아보기 힘들고 전체 목차의 ‘총론’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볼 수 있다. ‘조선 문단에 수사학적 분위기를 불어넣은 텍스트로 소개된 ‘이카라시 치카라[五十嵐力]의 『문장강화(文章講話)』에서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절에 해당하는 하위목차로만 존재하며,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의 『문장속달법(文章速達法)』에서는 ‘1장 대체적인 마음가짐이 작문법에 대한 총론 성격의 글로 실려 있을 뿐이다. 구자황, 「근대 작문의 계보와 이태준의 『문장강화』」,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2015, 486~487쪽.

이론 및 서간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단독으로 조명된 적이 없는 이 별도의 논설 텍스트가 갖고 있는 문장론으로서의 특징적 의의를 밝히고, 위당의 문장론에서 받은 일정한 영향 관계를 드러내며, 나아가 이 글이 근대 척독교본 『시문편지투』의 문장강화적 성격과 복합적인 텍스트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데 일조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정인보의 서문과 그의 영향력

- 「서한문강화략초」 문장론의 배경

이 장에서는 『시문편지투』의 맨 앞에 실려 있는 정인보의 서문이 어떠한 문장론, 서간론을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서한문강화략초」와 조응하는 지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저자⁶⁾는 서문에서 『시문편지투』의 저작 과정에서 ‘爲堂 六堂 두 선생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언급하여 이 책이 정인보와 최남선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직접 말하고 있기도 하다.⁷⁾ ‘위당과 육당’ 두 인물이 지목되었지만 실제로 이

6) 구자황, 문혜윤 편 의 앞의 책은 서울대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판본에는 저자를 ‘이명세(李明世)’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서강대 A본에는 표지의 저자 표기가 ‘조선시문연구회 편’이라고만 되어 있고 판권지가 유실되어 개인 저자 이름을 알 수 없고, 서강대 B본의 표지에는 저자가 ‘조용구(趙用九)’, 판권지에는 ‘윤종덕(尹鍾德)’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 권의 책 안에서, 혹은 동일한 책의 재쇄본에서 저자 표기가 불일치하는 것은 근대 출판물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점, 대부분 출판사 대표를 저자 이름에 올리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던 점을 참고할 때, 위 중 어느 쪽이 『시문편지투』의 실제 저자일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인보와 최남선을 따르는 일련의 후배, 제자 지식인 그룹 중 ‘조선시문연구회’라는 모임의 누군가가 『시문편지투』의 저자였으리라고 넓게 추정하고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저자’를 지칭하고자 한다.

7) ‘이 글을 내노출 때까지 爲堂 六堂 두 선생의 만흔 가르침을 주심과 조흔 글을 주심

책에서 두 인물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정인보의 서문이 유일한데, 이러한 그의 서문은 『시문편지투』라는 책의 본격적인 문장론 및 서간론의 방향성을 앞서서 하나의 완성된 예시글로 선취하여 보여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길지 않은 분량이므로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읽어본 것은 업스나 時文으로 된 편지투가 만흔 줄은 안다 勿論 完備한 것도 잇슬 줄 안다 그러나 좀더 完備한 新著를 내이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 사람의 歡迎을 바드리라고 書籍界에 議論이 잇슨 지 오래다 이 또한 쉬운 것이 안임으로 이제껏 빈 議論에 쓰치고 마랏다 이 冊은 時文편지투로 새로운 著作이니 著者와 갓가운 나로서는 出倫하다 함이 或 阿私의 嫌疑도 업지 안이하나 누구든지 이 冊을 볼 때에 그의 周到한 情曲의 模寫와 多端한 關係의 分別이 相當한 努力의 產物임을 깨달을 것이요 또 著者가 書翰文에 대한 講話를 뜻해 붓치어 套式만 보일 뿐 안이라 運掉하는 方略과 展開되는 經界를 自己 識見의 미치는 데까지 여러 가지로 說明하야 아모조록 完備에 遺憾이 업게 하라고 하얏다 나아가는 압 著述이 더 나홀 것은 물론이나 아즉은 이보다 지나는 것이 적으리라 하야도 過言이 아닐 줄 안다
- ② 편지는 막 쓰는 것이 第一이다 막 쓴다고 아무렇게 쓰라는 말은 아니다 문자를 모아서 얼른보기에 有識한 듯한 것이라던지 말을 공교하게 만드러 읽어보아 재미론 듯한 것이라던지 보태여 情談을 느끼고 꾸미여 交契를 나타냄에 功力을 限셋 드리는 것이라던지 다 막쓰는 것에 正反對가 아닌가 그러나 문자 모느라고 애쓸 것 업시 침부터 對話하듯 하라 여기서 眞意기 보일 것이며 공교하게 말고 그대로만 드러내라 여기서 衷情이 전하야질 것이며 功力을 드리지 말고 情談이면 보탬업는 情談대로 交契면 씬임업는 交契대로 저절로 소사나는 것만 取하라 여기서 밧는 이의 氣韻이 이러나는 것이다 무슨 글이던지 속에서 울어나는 것을 바리고 밧그로

을 이 冊 읽는 여러분과 갓치 기리 感謝하고져 한다, 정인보 저, 「著者の 말」, 구자황·문혜운 편(2011), 위의 책, 11쪽.

부터 雕鏤를 工巧히 하려면 工巧만도 맞춘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된대도 取할 것이 었다 더욱이 편지라는 것은 彼此的 隔離로 조차 생긴 것이니 부치는 本意가 어대 있는가 었지 辭句에 置重할 것이며 回答의 使命이 무엇인가 었지 修飾만 專力할 것이라

- ③ 여기 한 사람이 었서 美辭니 名文이니 드러본 일이 었다 門外剝啄이니 江雲嶺樹니 심지어 華翰이니 貴體니 最近에 향다반 쓰는 그리운 느낌 憧憬 懊惱 턱었서 드러오는 사랑의 祭壇 얼근하면 갖다 쓰는 牧者 일흔 羊群 달콤한 情 薔薇花 이슬 줌 神祕스러운 씩흐린 惡魔 멋잇고 韻致롭다고 늘 研聘하는 『아-○○이여』式 各種의 新名句를 하나도 모른다 그런데 이의 손으로서 군두목 두어 줄이 우수한 듯이 적히자 흐르는 情이 말서 急한 水沫을 四方으로 뿌리어 文人學士의 바라도 못 미칠 別境界를 여는 峯이 었다 이는 오죽 소사남의 그대로인 까닭이다
- ④ 막 써도 그대로면 貴하다 막이란 말이 勿論 粗率하다는 表示이나 그러나 粗率이라면 本質은 自在함을 알 것이니 粗率코 本質을 保有하는 것과 華麗로써 빈 것을 修飾하는 것이 었던 것이 난 것을 생각하라 막 쓰라는 말의 內意를 짐작할 슈 었을 것이다 나면 내대로라야 하고 情이면 情대로라야 하고 때면 때대로 자리면 자리대로라야 한다 대로는 萬變이다 그럼으로 내일 내가 오날 내 안이요 지금 먹은 맘을 줌었다 나는 생각에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으로 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만 쓰면 언제던지 獨特性이 었다 다른 데 움길 수 업스매 여기에 生命이 었는 것이다 套式은 從入의 塗徑이라 이는 이 冊만으로도 完備하다 할 수 잇스니 塗徑이야 지나고 마는 것이라 常住할 곳이 어대인가를 알아야 한다
- ⑤ 著者의 要求 뿐 아니라 나는 狂言을 文談 비슷하게 하는 癩疾이 잇슴으로 이 붓을 드러 序라는 篇目을 채운다 丙寅(1926) 重陽節 爲堂 鄭寅 普 (띄어쓰기, 문단 구분은 필자)⁸⁾

위 서문은 1926년 『시문편지투』의 최초 출간 당시 정인보가 쓴 글로,

8) 정인보, 「序」, 구자황·문혜윤 편(2011), 위의 책, 8~9쪽.

당시 서간 장르에서 유행했던 문체, 그에 대한 정인보의 판단과 평가, 나아가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서간문의 문장에 대한 생각을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①에서는 ‘時文으로 된 편지투가 많지만 더 완비된 저서를 서적계에서 기다려왔다’고 하여 당시 척독교본의 유행 속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책이 없었음을 언급하고 그 가운데 출판된 이 책이야말로 ‘출륜’함을 칭찬하고 있다.

②부터는 본격적인 서간론을 전개하는 대목이다. ‘막 쓰는 것이 제일’이라고 한 그는 그 반대되는 예로 ‘얼른 보기에 유식한 듯, 공교하고 재미롭게, 정담(情談)을 꾸미고 교분에 공력을 드리는 말’을 제시한다. 당시 대부분의 척독교본에서 제시되었던 격식을 차리는 한문투 표현이나 지식을 과시하는 듯한 난해하고 어려운 표현의 사용을 경계한 것이다. 편지의 ‘본의’는 ‘피차의 격리, 즉 서로 떨어져 있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니 ‘대화하듯, 있는 그대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을 써야만 하며 그럴 때에만 원래 전하고자 했던 ‘진짜 뜻과 속마음과 느낌’이 전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지는 ③에서는 당시에 유행하던 두 종류의 ‘미사명문(美辭名文)의 신명구(新名句), 즉 지식 과잉의 ‘한문서간 투식’과 감정 과잉의 ‘연애서간 투식’을 나열 방식으로 보여주며 이 두 방향 모두에 대한 강한 부정적 평가를 드러낸다. ‘문외박탁(門外剝啄), 강운영수(江雲嶺樹), 화환(華翰), 귀체(貴體)와 같은 한문서간의 표현도, ‘그리운 느낌, 동경, 오뇌, 사랑의 제단, 장미화 이슬’과 같은 연애서간의 표현도 배제한 채, 오직 ‘소사남의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쓸 때에만 표현의 새로운 경지, 즉 ‘별경계(別境界)’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

9)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중시한 정인보의 이러한 서간론은 실제 그의 문집인 『담원 정인보 전집』에 실려 있는 서간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국문으로 지은 여행기 형식의 서간, 아내에게 보낸 실제 편지 등을 소개하고 있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지원, 「위당 정인보의 한글 인식과 한글 글쓰기」, 『학림』 48, 연세사학연구회, 2021, 474~476쪽.

④에서는 이러한 ‘막 쓰는 것,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것’의 ‘귀한 가치’를 한번 더 힘주어 역설하고 있다. 정인보는 ‘대로는 만변(萬變)’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든 원 상태 그대로인 것은 언뜻 보기에는 ‘거칠고 조솔(粗率)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본질이 자재함’을 강조한다. 또 편지를 쓰기 위한 첫 단계에서는 『시문편지투』와 같은 교본을 통해 투식을 배울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종입(從入)의 도경(塗徑)’, 즉 ‘따라 들어가기 위한 길’에 불과할 뿐 ‘상주(常住)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서간 문장의 지향이 ‘본질을 갖춘 글, 거칠어 보여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글’임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척독교본의 역할을 ‘도경’, 즉 지나가는 길로 비유하며 ‘상주할 곳이 아님’을 못박아 놓음으로써 이 책의 독자들이 남의 글을 학습, 모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담은 문장을 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⑤는 글의 마무리 부분으로, 자신의 서문이 ‘문담(文談) 비슷하게 늘어놓은 광언(狂言)’에 불과하다는 겸사로 글을 맺고 있다. 여기서 자신의 글을 ‘미친 글(狂言)’이라고 한 것은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글 자체가 서문에서 펼친 ‘가식 없고 꾸밈없는 글’을 지향한다는 문장론의 실천적 텍스트라는 의미를 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스스로 ‘속에서 솟아나오는 자기다운 생각을 꾸미지 않고, 정제하지도 다듬지도 않은 글’, ‘표현은 거칠지만 본질을 갖춘 글’이라는 이상적인 글의 실제 구현을 자신의 서문을 통해 직접 시도해 보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인보의 서문은 『시문편지투』의 문장강화적 지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인보의 문장론은 당연히도 ‘언문일치’의 언어 상황을 전제로 한다.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생각’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과 그것이 표현되는 말·글의 상태가 당연히도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서문에서 바람직한 글의 이상에 대해 ‘남이 하는 말, 유행하는 문체,

한문식 투식구나 연애서간집 식의 미사여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솔직한 감정의 유로'라는 지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은, 그가 이끄는 지식인 그룹이 '언문일치'의 어문 상황을 전제했거나 그것의 실현을 이상적인 상태로 가정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한문강화략초」는 바로 이러한 정인보 서문의 문장론 혹은 서간론을 더욱 확대,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텍스트이다. 다음 장에서는 「서한문강화략초」의 구성과 양상을 짚어보면서 이 텍스트가 정인보의 서문과 지향을 같이하고 있는 지점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서한문강화략초」의 구성과 문장론

이 장에서는 「서한문강화략초」의 전체 목차의 구성과 전반적인 글의 구도를 살펴보고 각각의 부분이 어떤 성격의 내용을 담고자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이루고 있는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총 10개의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번호	목차	주요 성격
1	人生의 感情發表慾과 文章의 起源	총론
2	文章의 要素	작문법
3	文章의 組織	
4	文章의 種類	
5	文章의 價値와 效果	문장론
6	文章과 人生生活과의 關係	
7	書翰文의 特点	서간론
8	時代와 書翰	
9	現代書翰의 歸趣	
10	書翰의 活用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한문강화략초」의 10개 장은 내용면에서 볼 때 약 4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장 ‘인생의 감정 발표욕과 문장의 기원’은 총론적 성격을 가지며 언어와 문자, 글의 기원에 대한 독자적 에세이와 같은 성격의 글이다. 2~4장까지 ‘문장의 요소, 문장의 조직, 문장의 종류’는 구체적인 글쓰기 기술을 제시하는 작문법 성격의 글이고, 5~6장인 ‘문장의 가치와 효과, 문장과 인생 생활과의 관계’는 문장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7~10장 ‘서한문의 특징, 시대와 서한, 현대 서한의 귀취, 서한의 활용’은 서간이라는 글의 형식에 초점을 맞춘 서간론적 성격을 보여준다. 다음에서는 이 텍스트를 크게 총론적 성격의 1장, 작문법과 문장론을 다룬 2~6장, 서간론을 다룬 7~10장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대목의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 ‘감정·표현·글’의 본질에 대한 기원적 사유

「서한문강화략초」의 1장은 ‘인생의 감정 발표욕과 문장의 기원’이다. 이러한 제목의 의미는 ‘인간은 감정을 꺼내 표현하고자 하는 본원적인 욕구가 있고, 바로 그 표현의 욕구가 문장, 즉 글을 쓰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라는 뜻이다. 우선 이 글에서 생각의 단초를 풀어내는 출발점이 되는 것은 인류가 갖고 있는 양대 능력, 즉 이성과 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그 중에서도 문명의 건설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 것은 ‘감정’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 1장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기로 한다.

- ⑥ 千態萬象의 設計를 圖하고 形形色色의 計畫을 案出하여 그 天然의 本質과 傳來한 系統의 內容과 意義가 如斯如斯함을 感得하며 推測하고 이것을 基礎로 하며 假定으로 하여 人生生活方面에 物質的으로 精神的으로 便宜와 利益을 圖할 方法과 手段을 案出하나니 科學的理智의 發動이 이것이다. …… 進化된 吾人祖上의 遺傳과 傳來의 說話며 現

代의 見聞으로 多樣的 理智의 解釋과 判定이 生하는 것이다.

- ⑦ 그 反面에 우리는 理智를 超越한 內部的 衝動感覺이 있다 …… 感情은 다만 總括의이다 靜穩하며 興奮된다 極端的의이다 感情의 本體는 外來의 刺觸으로 內部的 衝動이 與하는 直覺의 斷定이다 …… 내가 害를 받더라도 人을 害하라는 報讎的 行動이 잇슴을 보며 나를 犧牲하여서라도 人을 利하라는 義俠的 行動이 잇슴을 본다 理智로 解하여 어나 것이나 可當하라 그러나 거기서 人情의 美가 或 表現되기도 하며 萬代를 貫한 義德이 稱頌되기도 한다 …… 만드른 꽃이 아모리 美妙한들 덜 妙한 自然生의 꽃만 하라 그 色彩 때문도 안이오 그 香氣 때문도 안이다 …… 說明으로 表하지 못할 곳이니 그 能히 發表하지 못하는 것이 情感의 高貴한 곳이다 桃花의 한송이를 볼 때에는 …… 모든 것이 和合된 美가 感될 뿐이오 그 花瓣이 멋이며 그 栽培方法과 採種方法을 구하여 알려고 아니한다 이것이 感情의 發動이다 이 모든 衝動과 發露로 因하여 意志가 生하며 精神上 諸般 現像이 發顯되나니 人類의 知識이란 學問이란 이런 것의 融合 結露가 안이나 이에서 文明이 產出되며 모든 時刻으로 起하고 廢하는 現像이 生한다
- ⑧ 이 諸般 精神上 感覺 知覺을 自體에게서부터 他에게 知感케 하려 한다 또한 人에게서 知感을 바드라 한다 이것은 人類 必然의 慾望이니 이에서 發表慾과 求知心이 發生되는 것이다 이것은 人類가 進化됨을 따라 漸次로 發達에 進歩가 促進되며 더구나 社會的 生活의 必要를 感함으로부터 여러 가지 方面으로 刺戟되야 더욱더욱 그 必要와 義意를 痛感케 된 것이다 그리하여 聲帶를 利用하며 動作으로 形容하야 意思를 發表함이 言語와 形喩이다 그러나 그 言語가 貴重하나 能히 遠力에 達할 슈 업스며 能히 未來에 傳할 슈 업고 記憶이 또한 限이 잇스니 言語의 力의 不及을 感하고 文字를 案出하야 言語를 標記하기에 至하였다 …… 이 文字를 써서 意思의 發表를 具體的으로 構成 發現한 것이 文章이다
- ⑨ 文章이 生한 後에 人類는 얼마는 만히 이에서 便益을 바닷스며 幸福을 求하는 武器로 썼스나 사이에 이것을 얼마나 또한 惡用하얏스며 惡化하얏스랴 …… 그러나 滔滔한 本流는 燦爛한 文化를 產出하야 各各 其當

代를 代表하는 名文瓊句가 山積하기에 이르렀스니 …… 그 效果를 認하고 日常에 利用하여 그 盛衰는 卽 그 文化의 程度를 準測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文章史는 實로 起伏를 거듭하고 波瀾을 지내여서 現今에는 엇지 한 重大한 器具에 긋치라 獨立한 價値를 發揮하여 人生의 意志와 事業을 左右하는 한 自動의 役軍같은 態度가 보이랴 한다¹⁰⁾

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능력은 ‘과학적 이지(理智)’, 즉 이성의 힘이다. 이에 따르면 인류가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의와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학적 이지’가 발동했기 때문이다. 이 이성의 힘은 조상에게서 전해 받은 지식과 이야기, 현대의 견문을 통해 이성적 해석과 판단으로 발현된다고 한다.

이어지는 ⑦에서는 인간의 또다른 능력인 ‘내부적 충동 감각(感覺)’, 즉 감정이 갖는 힘과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감정은 과학적 이지를 ‘초월’한 힘, 이성으로는 해석되기 어려운 힘으로, ‘총괄적이고 정온’하며 ‘극단적이지만 충동성과 직관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된다. ‘내가 해를 당해도 복수하겠다’거나 ‘내가 희생되어도 남을 돕겠다’는 판단도 이성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깊은 힘 때문이며,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역시 ‘색채, 향기, 열매’ 등의 이성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총체적인 감정의 힘 덕분이라는 것이다. 결국 ‘모든 충동과 의지가 일어나고 정신상의 모든 현상이 발현’되며 ‘지식과 학문의 제반 현상이 융합되고 결실을 맺어 문명이 산출’되는 근저에는 근원적인 힘으로써 ‘감정’의 힘이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⑧에서는 소통의 욕구와 언어, 문자의 탄생을 언급한다. 이렇게 감정의 힘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의지와 학문 등의 제반 현상은 ‘타(他)에게 지감

10) 『書翰文講話略抄』 중 ‘1. 人生의 感情發表慾과 文章의 起源’, 구자황·문혜윤 편, 앞의 책, 2011, 201~204쪽.

(知感)케 하려는', 즉 남에게도 알리고 느끼게 하고 싶은 '인류 필연의 소통의 욕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발표욕(發表慾)과求知心(求知心)'으로 표현되는 '표현과 소통의 욕구'는 곧 도구로서의 '언어와 문자'의 탄생으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의사를 구체적으로 구성, 발현'한 '문장', 즉 글이 탄생하게 된다.

인간의 본원적 능력인 감정과 이성의 힘으로 시작하여 이를 이용한 지식과 학문의 축적, 또 이를 소통하고 전달하기 위한 언어와 문자, 문장(글)의 탄생까지 인류 문명의 역사를 훑어내려온 이 글의 흐름은 ⑨에서 이제 '글'이 갖는 효용과 가치, 의의를 설명하기에 이른다. 문장은 인류에게 '편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며 '찬란한 문화를 산출'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이제는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명문경구(名文瓊句)'가 산적하게 되어 '문화의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힘을 가진 '글'은 의사표현을 위한 도구적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며 '인생의 의지와 사업을 좌우'할 만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서한문강화략초」의 1장에 해당하는 이 글은 '인생의 감정 발표욕과 문장의 기원'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감정의 힘, 표현의 욕구, 글의 기원'에 대한 하나의 총론적 서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제 뒤에 이어질 구체적인 각론들, 즉 작문법과 문장론과 서간론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큰 밑그림과 같은 역할을 하며, 「서한문강화략초」라는 글을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문장과 글에 대한 본질적 사유를 담고 있는 총체적인 문장강의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작문법의 이론화 및 체계화 지향

이 장에서는 작문에 있어서의 이론적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서한문강화략초」의 2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이 부분은 그 안에서도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2~4장은 작문법의 기술적, 형식적 요소들, 5~6장은 글의 가치와 효과를 고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⑩ 文章을 成함에는 먼저 說코자 하는 理論이나 表코져 하는 情感의 基礎 되는 意思가 確立하여야 한다 이러한 基本의 構想이나 衝動이 업시 記述된 文은 이것이 죽은 文章이다 …… 그러한 主想이 업시 쓴 文은 아모리 雄文이라도 一分의 價格이 업슬 뿐 아니라 도리혀 文章을 侮辱하는 것이다 먼저 表하러는 意思의 整理가 重鎮이다 …… 내가 發表하라는 무엇이 잇서 그것을 發表하는 順序와 條理를 차리노라 構想하여야 한다 …… 言語와 文字의 整頓이 이에 큰 한 要素이다 …… 言語나 文字의 選擇과 改良은 한 時代的이며 社會的 큰 問題이니 여긔서 말할 것 안이나 現行範圍 以內에서도 言語를 選良하고 文勢를 取捨할 點은 不少하다 …… 우리 語文은 이것이 理智的이요 藝術的 色彩를 天然的으로 띄운 好個의 語文이다 그러나 歷來의 歷史的 波瀾은 이에 만흔 傷處를 내이엇스니 現今도 歐米語나 本語 等으로 因하여 或好影響도 바드나 잇다금 傷處가 나는 것을 보겠다 …… 構想의 整理와 語文의 選擇은 勿論 만흔 文章을 讀하여 玩味하며 解剖하고 自手의 活用의 길을 거듭함으로 鍛鍊되는 것이니 만흔 글을 읽음이 必要함과 同時에 이것을 알고 읽으며 內容을 切實히 咀嚼하여야 한다

⑪ 文章은 엇지하여 成하느냐 …… 文字가 습하여 語句를 成하며 語句가 습하여 節章이 성하며 節章이 모히면 이것이 文이니 이 文이 聚集하여 畢竟 汗牛充棟의 大著述이 될 것이다 …… 大概 文章은 이것을 三段으로 分하라 처음에 概念과 問題의 說明과 解答을 바라는 焦點을 明白히 하여 大略 問題의 解答希望熱을 懇切하고 明白히 하며 或 熹微한 解說을 與하고 中段에는 모든 것은 敷衍하여 東西로 引證하며 縱橫으로 說破하여 明確한 印象을 與한 後 三段에 至하여 모든 것을 收合하고 問題 解說의 要義를 述하여 簡明한 印象으로 攄맛친 後 …… 以上 方法대로 構想되면 各各 境遇와 形便을 짜라 文句를 作成할지니 큰 問題 속에

各段을 如何히 細分하든지 或三段이나 或五段이나 概定하여 各段落에 標題를 內定할 것이다 그리하여 各各 그 標題를 論述하여 各各該段落의 明瞭함을 示하여 段節을 別히 하고 그 段落에 示明한 바이 快然하게 할 것이다

- ⑫ 文의 種類는 그 形으로 보아 韻文과 散文이잇스니 …… 그 內容으로 보아 理智的과 感情的 兩方面으로 分하나니 理智的 方面은 普通方面이요 情感的이라는 것은 藝術的 方面을이름이다 …… 漢文만 보아도 賦詩 文 詞 等의 種類가잇스며 그외에 各方面을 隨하여 經史에는 거기 特殊한 文彩와 文勢가잇고 歌辭에는 거기 特異한 맛이 잇스며 疏文이나 祭文에는 거기 別다른 論法이 잇슴이니 엇지 이로 種類를 枚舉하라 다만 藝術的 方面과 理智的 方面으로 大別하여 統括함이 좋겠다¹¹⁾

위 첫 번째 인용문인 ⑩은 2장 ‘문장의 요소’ 중 일부로, 본격적인 작문법의 형식 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 장에서 문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첫째, ‘말하고자 하는 핵심 생각(主想)의 정리’와 둘째, ‘말과 글(語文)의 정돈’이다. 작문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소인 ‘주상(主想)의 확립’이란 글의 중심 생각, 곧 주제를 명확히 할 것을 말한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말하고자 하는 이론이나 표하고자 하는 정감의 기초가 되는 의사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없는 글은 ‘죽은 문장’이라고까지 단언하고 있다. ‘먼저 표현하려는 의사의 정리’, 즉 중심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는 것이 ‘중진(重鎭)’이며, 그 다음에 ‘순서와 조리를 차리는 구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문에 있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로 제시한 것은 ‘언어와 문자(語文)의 정돈’이다. 이러한 ‘언어와 문자의 선택과 개량’이라는 문제는 ‘시대적,

11) 『書翰文講話略抄』 중 ‘2. 文章의 要素’, ‘3. 文章의 組織’, ‘4. 文章의 種類’, 구자황·문혜윤 편(2011), 위의 책, 204~209쪽.

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좋은 언어를 선량(選良)'하고 '글의 경향(文勢)을 선택'하는 것은 긴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작문법의 요소로서의 '어문의 정돈'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다듬는 일인데, 특히 외국어로부터의 영향과 간섭으로 인한 문제를 안타까운 어조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우리 어문'을 '이지적, 예술적 색채'를 띤 '호개(好個) 언어'라고 평가하여 당시의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우리 말에 '역사적 과란으로 인한 상처'가 많으며 '현재도 구미어(歐美語), 본어(本語)로 인한 상처'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글쓰기의 형식적 기술과 작문 방법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민족적 언어의식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술로, 민족어로서의 우리 말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했던 위당의 인식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⑩의 마지막 문장은 이 장에서 글쓰기의 양대 요소로 제시한 '뚜렷한 중심 생각(構想的 整理)의 구상'과 '언어의 선택(語文的 選擇)'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와 스스로의 연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읽은 문장을 '완미(玩味), 해부(解剖), 절실히 저작(咀嚼)'하고 '자수(自手)의 활용의 길을 거듭함'을 통해서만이 자신만의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⑪은 3장 '문장의 조직'의 한 대목으로, 완성된 글을 이루고 있는 하위의 구성 단위를 소개하고 글을 조직,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글쓰기의 단위는 하위 요소부터 볼 때 '문자(文字), 어구(語句), 절장(節章), 문(文)'의 순서이며, 그렇게 쓰인 '문'이 모이고 쌓여서 '대저술'이 된다고 설명한다. 글의 구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삼단 구성을 권하면서 서본결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서론, 즉 '처음' 부분에는 '초점을 분명하게 하여 개념과 문제를 설명'하고 '해답

을 희망하는 열의를 간절하고 명백히 해설'하라고 한다. 본문, 즉 '중단(中段)' 부분에는 '동서, 종횡으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敷衍)하고 명확한 인상'을 줄 것을, 결론인 '삼단(三段)'에서는 '모든 것을 수습하고 간명한 인상으로 끝마칠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삼단 구성의 큰 틀을 확정된 후 실제 글쓰기에 착수했을 때의 지침에 대해서도 '각단(各段)'을 세분하여 '표제(標題)를 내정(內定)하여 논술(論述)'해야 한다고 하여, 개요가 되는 큰 생각의 흐름인 문단의 개념을 제시하고 문단 별로 뚜렷이 내용이 구분 되게 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지는 ⑫는 4장 '문장의 종류'로, 즉 글의 장르에 해당하는 다양한 글의 종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형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운문과 산문'으로, 한문의 경우에는 '부(賦), 시(詩), 문(文), 사(詞)' 등의 하위 갈래로, 각 방면에 따라서는 '경사(經史), 가사(歌辭), 소문(疏文), 제문(祭文)' 등의 다양한 분류로 나누어볼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이 모든 구분을 포괄할 수 있는 큰 기준으로 '내용'의 차원을 언급하면서 '논리적(理智的) 글, 감정적 글'로 양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이때 논리적 글은 '보통 방면', 즉 일상 생활에서 쓰는 글이며 감정적 글은 '예술 방면'을 가리키는 글임을 부연했다. 또한 글의 갈래를 일일이 '매거(枚擧)'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의 큰 구분을 따르는 것이 유용함을 역설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서한문강화략초」의 2~4장까지의 세 개의 장은 각각 모두 글쓰기의 기술과 형식적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글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는 '중심 생각의 확립'과 함께 민족 언어의 착종된 상황 속에서 '어문의 정돈'이 필수적임을 제시하였고(2장), 글을 '조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처음, 중간, 끝의 삼단 구성'과 '개요 작성 및 문단 개념의 적용'을 권유했으며(3장), 글의 '종류'는 장르 구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성적, 현실적 글과 감정적, 예술적 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4장)을 말했다.

이러한 서술은 작문법의 형식적, 기술적 요소들을 최대한 분석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며, 글쓰기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화를 지향하는 서술이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렇게 구체적인 작문법 요소를 설명하는 중에도 앞선 정인보의 서문에서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특히 ⑩에서 ‘역사적 파란으로 인한 우리말의 상처’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드러나는 어문 상황에 대한 민족주의적 문제의식, ‘하고자 하는 말이 뚜렷해야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의 노력(自手)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한 부분은 정인보의 서문과 「서한문강화략초」가 공통적인 사유의 기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준다.

이어지는 「서한문강화략초」의 5~6장은 ‘글’이라는 매체가 갖는 가치와 효과에 대한 서술을 제시하는 ‘문장론’에 가까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⑬ 文章이 歷史 잇는 後 連綿幾千年 사이에 우리 人類界의 興亡과 갖치 모든 것을 지내어왔다 興할때에도 文章이 얼마나한 貢獻을 하였으며 亡할 때에도 얼마나한 助力을 하였다 …… 어나 곳에나 어나 때에 必需치 안은 곳이 업서서 그 利用如何를 짜라서 大善이 되며 大惡이 되고 興이 되며 亡이 되고 建設 或은 破壞가 되나니 그 價値는 絶對한 것이다 …… 今日의 運動 方法은 모다 이로써 武器를 삼음이 엇지 有利치 안으랴 …… 그 價値를 利用하면 그 效果가 쏘한 如何히 絶大할가 함은 다시 말할 것 업다 一室에서 講論함과 一薦의 論文을 刷出하여 頒布함과 그 效果가 엇덜가만을 생각하야라 그 分量으로 보아 그 印象깊힘으로 보아 時間的 傳播力으로 보아 如何한 效果가 잇슬가 …… 그 絶大한 效果는 무슨 事爲에 利用만 되려고 안이하고 그대로 自動的으로 事業을 하야 自體의 尊重을 保하라고 한다 함이 그效果가 이러한 까닭이니 엇지 文章이 政治에게 利用된다고 하지 못하겠고 政治도 文章이 안이면 存在 못한다고 할 것이라 함이다

⑭ 前節의 말함 갖흔 偉力이 잇스니 文章이 人生生活의 엇지 切實한 關係가 업슬가 임의 그갖흔 效果를 낫하내어 各樣의 事爲를 興衰케 함이

발서 人生生活에 關係됨이 안일가 …… 文章은 能히 人生生活을 改造하는 힘이 있고 美化하는 힘이 있고 平和케 하는 힘이 잇스며 維持支配함에 制度를 직히고 權威를 保存케 한다 얼마나한 切近한 關係인가 萬一 人生生活에서 이것을 除去하면 野蠻化하며 暗黒化하고 말 것이며 滅亡의 痕迹조차 杳然하리라¹²⁾

위 ⑬은 5장 ‘문장의 가치와 효과’ 중 일부이다. 여기서는 ‘문장’, 즉 글이 수천 년에 걸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선악, 흥망, 인류 문화의 건설과 파괴’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쳤음을 언급하고 글이 갖는 위력을 잘 이용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한 편의 글(論文)’이 인쇄되어 퍼졌을 때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은 음성 언어로서의 말이 갖는 일시적 성격에 비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글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글이라는 매체 ‘그 자체의 존중을 보(保)하려는’ 경향성을 갖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글이 어떤 외부적이고 인위적인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이용되지만 하지는 않음을 강조하고 글, 문학, 문장이 갖는 그 자체의 목적성과 가치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⑭는 6장 ‘문장과 인생 생활과의 관계’의 한 대목이다. 글이 인간 삶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에 대해 앞 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절실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복기한 후, 문장이 인생을 ‘개조, 미화’하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제도를 지키고 권위를 보존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글이 없어진다면 ‘인류가 야만화, 암흑화’하며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문장이 인간의 삶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당시 민족담론의 계몽주의적 관점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한문강화략초」의 5~6장은 앞서의 글쓰기의 이론적 요소를 상세히

12) 「書翰文講話略抄」 중 ‘5. 文章의 價値와 效果’, ‘6. 文章과 人生生活과의 關係’, 구자황·문혜윤 편(2011), 위의 책, 209~210쪽.

제시한 2~4장에 비해 그 분량이 절반에 불과하고 서술된 내용도 다소 비약적으로 보이지만, 글이 인간의 역사에 미쳤던 영향력과 가치, 문장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언급함으로써 2~4장까지의 작문법 서술에 대한 일종의 가치 부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서한문강화략초」는 글쓰기의 방법론, 작문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담고 있으며, 글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가치론적 관점과 문장론의 차원으로 사유를 확장하는 서술을 보여준다. 또한 이렇게 작문법과 문장론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인 서술 속에서 위당 정인보의 문장론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대 민족주의 지식인 그룹의 계몽적 관점까지 아우르는 글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3) 서간 장르의 당대성 및 진실성을 위한 언문일치 문체의 필요성

「서한문강화략초」의 마지막 네 개의 챕터인 7~10장은 본격적인 서간 장르만을 대상으로 그 논의의 범위를 좁혀 의견을 펼치는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7장 ‘서한문의 특점’, 8장 ‘시대와 서한’, 9장 ‘현대 서한의 귀취’, 10장 ‘서한의 활용’을 대상으로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서간론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짚어보기로 한다.

- ⑤ 書翰文의 發生은 普通文章의 發生과 紀元을 갖치 하얏슬 것이다 가장 實用的이요 가장 日常生活에 近接한 關係가 잇슴으로 …… 이것은 萬人 必需의 關係가 잇스니 萬般 事爲에 얼마나 接近하는 利用機가 만흔가 書翰의 優劣은 그의 人格評定의 標準이 되다고까지 한다 …… 藝術方面 에 書翰이 如何한 貢獻을 陰으로 陽으로 하는가 書翰式 藝術作品은 얼마나 잇슬 수 잇다 또한 日常에 한 張 書翰을 바다들고 讀過할 때에도 喜怒哀樂의 情緒의 發動이 얼마나 되는가 或 快를 부르지줄 때도 잇스며 或 激忿熱面의 不快를 感할 때도 잇스니 通俗的 藝術의 힘이 엇다고

할 수 있스라 …… 여기서는 더욱 感情調和에 尤甚한 注意가 要한다 …… 尊敬과 謙讓이 或 過하고 不及함으로 因하여 感情을 傷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禮遇에 差異를 卞라 不平을 感한다 이갓치 千萬가지로 細密한 注意를 周到히 할 必要가 있스니 …… 禮儀는 文明人의 가장 尊崇하는 것으로 書翰에 가장 明瞭히 現出되나니 尊卑貴賤과 老少男女를 卞라 境遇와 形便을 分揀할 것이다 文章의 高下에도 程度를 볼 것이다 무슨 문장이나 그릇치만 卽 讀者의 程度 參酌할 것이나 더구나 書翰은 曖昧한 句節 古昔의 偶話 解釋키 어려운 文句 等은 絶對로 不緊하다 …… 語文의 統一이 업고 東西의 文字와 古今의 文章이 錯亂流行하는 現代에 分揀區別이 어렵으나 卽 如此할수록 弊害는 더 釀生되나니 더 一層 注意할 것이다¹³⁾

위의 ⑮는 7장 ‘서한문의 特點(特点)’의 일부를 발췌한 인용문이다. 앞서 「서한문강화략초」의 1장에서 인간의 표현 욕구와 소통 수단으로서 문장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총론을 펼치고, 2장에서 6장까지 글쓰기의 요소와 구성과 장르 등에 대한 작문 이론과 문장의 효용 가치에 대한 문장론의 관점을 보여주었다면, 위 인용문은 텍스트의 표제 그대로 본격적인 ‘서한문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으로, 서간문만의 장르적 특징과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서한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 편지의 보편적 특성이다. 서간은 ‘실용적인 일상 생활’의 문장, 즉 ‘보통 문장(普通文章)’의 발생에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만반 사위에 이용할 기회가 많은’ ‘만인 필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에게 생활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장르라는 점 때문에 서한은 그 자체를 통해 그것을 쓴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평가되는 ‘인격 평정(平定)’의 표

13) 「書翰文講話略抄」 중 ‘7. 書翰文의 特点’, 구자황·문혜운 편(2011), 위의 책, 211~212쪽.

준'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이 장에서 서한의 두 번째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술적, 감성적 특성이다. 이때의 예술성이란 앞서 말한 '보통 문장'의 반대되는 속성의 의미로, 감정적 고양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말한다. 서한은 평범한 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보통 문장'의 장르지만 또한 '서한식 예술 작품'도 많고 '예술 방면에 공헌'이 많은데, 이는 서간이라는 장르가 '희노애락'과 '쾌함과 불쾌함'의 느낌을 강하게 자극시켜 '정서(情緒)를 발동(發動)하게 하는'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서간문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서술은 곧 그것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우선 '감정을 조화롭게 전달하기 위해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예의의 표현과 문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존경과 겸양의 정도를 잘 지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예우의 차이'에도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불공평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의'의 문제는 특히 '서한에서 가장 명료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존비귀천, 노소남녀'를 비롯한 모든 경우를 정확히 분간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애매한 구절, 고석(古昔)의 우화, 해석이 어려운 문구' 등을 절대 쓰지 않도록 '분명한 문장력'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서간문의 특징과 주의점을 밝히고 있는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이 당시의 어문 현실의 고충에 대한 환기와 독려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위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당대의 언어 현실에 대해 '어문의 통일이 없고 동서의 문자와 고금의 문장이 착란유행(錯亂流行)'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렇수록 폐해가 클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이는 정인보가 서문에서 언급한 '한문서간 투식, 연아서간 투식, 번역체' 등 서간문 문체들의 착종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서한문강화략초」의 7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그 시대의

언어 현실과 문제점을 분명하게 자각해야 한다’는 계몽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⑩ 그 時代에 잇서 各各書翰은 獨特한 勢力을 發揮하며 또한 各異한 書翰體 잇나니 갖흔 漢文式 書翰에도 支那와 朝鮮이 다르고 古套와 新式이 判異하니 누구가 命하야 套式의 行함을 強要하라미는 歷史的 變異와 環境의 事情을 因緣하야 各其時代를 代表할 만한 文式이 生하는 것이다 그런즉 書翰도 時代와 가치 追移되며 變化된다 其 時代에 現行되는 書翰을 쓰라면 먼저 時代相을 觀察하야야 한다 …… 經來한 歷史와 將來의 豫想과 現狀의 如何며 外來의 接觸 等を 잘 觀破한것이 時代相이다 各其그 時代에서는 그 時代相에 맞는 文章이 안이면 能히 效果가 업슬 것이다 그 時代의 書翰을 보면 그 時代의 文化 程度를 推知할 것이다 그 書翰은 그 時代相을 對象으로 하고 記述되얏기 때문이다 그 時代의 禮儀와 習俗은 明細히 書翰으로 表現된다 書翰은 時代的 禮儀를 잘 標準하얏기 때문이다¹⁴⁾

위 ⑩ 인용문인 8장 ‘시대와 서한’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서간문의 당대적 특성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⑪에 따르면 시대마다 서한은 ‘독특한 힘을 발휘하며 시대와 사회에 맞는 ‘서한체’를 보여준다고 한다. 한문식 서간도 ‘지나식, 조선식’, ‘고투(古套)와 신식(新式)’이 있으며 ‘역사적 변이, 환경의 사정’에 따라 그에 맞는 ‘문식(文式)’, 즉 서한의 문체도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시대상을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 ‘시대상’이란 ‘지나온 역사, 장래의 예상, 현상의 여하(如何)에 외래의 접촉’을 합친 것이라고 하여 ‘과거, 미래, 현재’를 아우르면서 외국 문화의 영향까지 흡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는 이러한 시대상은 ‘그 시대

14) 『書翰文講話略抄』 중 ‘8. 時代와 書翰’, 구자황·문혜운 편(2011), 위의 책, 212~213쪽.

의 문화 정도, 예의와 습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서술은 서간이라는 장르가 역사성과 시대적 의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당대의 문화적 반영물로서의 특성까지 갖춘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

⑰ 語文의 混亂으로 新舊文化의 不調和로 原因되야 現代 書翰은 千態萬象이요 奇奇怪怪하다 …… 漢文式에 儒教禮文으로 成한 書翰式이 長久한 동안에 智者階級에 專屬하야 宏大한 努力을 發揮하야 왔슴으로 現今도 大部分 이에 傾向된다 …… 最近에 이르러 歐米文學이 翻譯되며 日文學이 傳盛됨을 싸라 이 影響이 莫大하야 漢學的 勢力을 侵衰하얏다 朝鮮文에 對한 自覺이 이어나고 國文崇拜思想이 漸次로 波及되며 …… 前日 諺文의 微微한 勢力은 突變하야 到處公私에 諺文이 쓰이고 各種의 朝鮮文 印刷가 發生하며 …… 이갓흔 文學思想의 變遷의 結果 書翰이 奇奇怪怪히 된 것이다 傳來式 漢文書翰과 이것에 조금 國文으로 調和한 것과 純全한 言文一致式이며 또는 英文이나 日文의 氣味를 섞은 文套等 實로 複雜多端하니 이것이라는 歸趣가 업스며 더욱 外國語 中毒의 怪常한 글을 쓰는 사람도 不無한 現象이다 그러나 그中에 第一 有望한 것은 言文一致式으로 漢文式을 朝鮮語로 化한것을 加味한 것이다 이것이 將來의 勢力을 가지게 될 것이며 次第로 進化할 것이다 思想과 階級을 싸라 사람마다 各殊한 中 純全한 言文一致가 異彩를 發할 뿐이다¹⁵⁾

⑰은 9장 ‘현대 서한의 귀취’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대 서한의 ‘기괴괴괴’하고 ‘천태만상’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어문의 혼란’과 ‘신구 문화의 부조화’ 때문인데, 이는 한문 중심의 ‘유교예문(儒教禮文)’이 쇠퇴하고 ‘구미문학(歐美文學)’의 번역과 ‘일문학(日文學)’의 급격한 유행

15) 「書翰文講話略抄」 중 ‘9. 現代書翰의 歸趣’, 구자황·문혜윤 편(2011), 위의 책, 213~214쪽.

과 함께 ‘조선문(朝鮮文)에 대한 자각’이 ‘국문학 부흥’과 함께 일어나면서 언어의 혼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정인보의 서문과 「서한문강화략초」 7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서간문 문체의 심화된 착종 현상이 다시금 언급된다. ‘진래식(傳來式) 한문 서한’, ‘국문이 조금 조화(調和)한 서한’, ‘순전한 언문일치(言文一致) 서한’, ‘영문이나 일문의 기미(氣味)를 띄운 서한’과 같이 다양한 언어 상태가 ‘기괴하게 섞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9장에서는 이러한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언어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현대 서한의 귀취’를 보다 선명하게 ‘순전한 언문일치식’의 문체, 즉 ‘한문식을 조선어로 화(化)한 것을 가미(加味)한’ 문체라고 단언한다. 그러한 언문일치 문체만이 ‘장래에 세력을 갖고 이채(異彩)를 발(發)할 것’이라는 판단은 위당이 서문에서 제시했던 어문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성 및 서간문이라는 매체의 이상적인 발전 방향성을 그대로 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⑬ 한갓 式套와 文字에 拘泥하여 強히 構想 以外에 雄文을 得코자 하며 程度 以上에 美文을 作코자 하면 거긔서 반다시 病弊가 生한다 順順히 成한 書翰과 苦勞로 作한 書翰과는 一見에 그 價格이 낮하나나니 …… 모든 套式은 다만 내의 活用으로 適處에 두게 되어야 한다 남의 書翰이나 書翰文範에 잇는 材料를 對함에 이것을 分析解體하고 示意를 玩味 詛嚼하며 文字를 左右로 反覆解釋하여 徹底히 그 글의內容이 내 것으로 化하게 한 後 慶賀의 文이 哀弔의 文과 折衝되는 때도잇고 慶 갖흔 哀가 人에게 表示되게 될 때도 잇서 東西와 上下로 活用하게 되어야 眞 正한 書翰의 面目이 生한다¹⁶⁾

16) 「書翰文講話略抄」 중 ‘10. 書翰의 活用’, 구자황·문혜운 편(2011), 위의 책, 214~215쪽.

위 ⑬은 「서한문강화략초」의 마지막 장인 10. ‘서한의 활용’이다. 위 인용문은 짧지만 앞서 언급한 정인보의 서문에서 보였던 문체론 및 서간론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집약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내용처럼 보인다. ‘식투(式套)와 문자에 구니(拘泥)’되어 필요 이상의 ‘웅문(雄文), 미문(美文)을 쓰려고 하는 병폐를 버리고 ‘순순히 노력하여 쓴 서한’이 더 가치가 있다는 서술은 곧 정인보의 서문에서 말한, ‘있는 그대로, 솟아나는 대로 막 쓰라’는 주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모든 서간문범에 있는 투식구들을 ‘분석 해체(分析解體)’하고 자기 식으로 ‘완미저작(玩味咀嚼)’할 것을 권하는 서술이나, 그럴 때만이 ‘글의 내용이 내 것으로 화(化)하게 된다는 서술, 그럴 때 ‘경하(慶賀)의 글이 애조(哀弔)의 글과 절충’되는 내밀한 감정이 드러나게 된다는 서술 또한 정인보가 말한 ‘진실한 표현의 새로운 경지’와 통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결국 「서한문강화략초」라는 텍스트의 마지막 장에서 말하고자 했던 ‘서한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핵심적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것은 당대의 혼란스러운 어문의 착종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순순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언문일치’ 문체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며, 그래야만 ‘진실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서간’, ‘진정한 서한의 면목이 살아있는 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 위당 문장론의 영향과 「서한문강화략초」의 의의

본 논문은 1926년에 저술된 척독교본인 『시문편지투』에 실린 별도의 논설 에세이인 「서한문강화략초」의 문장강화적 양상과 그 의의를 탐구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시문편지투』라는 텍스트 전체의 사상적 지향과 문장론의 방향성을 정위하면서 지적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위당 정인보의 서문을 분석하였다. 정인보는 서문을 통해 ‘유식하게 보이기 위해 공들이고 애쓰는 한문 격식투’나 ‘과잉된 감정을 늘어놓는 연애 서간식 문체’를 모두 배격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 ‘속에서 우러나고 솟아나는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언문일치의 언어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다.

이어서 지금까지 단독으로 조명된 적이 없는 「서한문강화략초」의 문장론과 서간론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위당의 서문과 어떤 지점을 공유하고 있는지 탐구해 보았다. 먼저 「서한문강화략초」의 10개의 장을 크게 ‘총론, 작문법과 문장론, 서간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 보다 자세히 장별로 분석하였다. 1장의 총론을 통해서 이 텍스트가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문장론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과 역사, 인류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 본질적 사유를 담고 있는 총체적인 문장강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장~6장의 작문법과 문장론, 7장~10장의 서간론을 통해서 체제적인 작문 이론을 구축하는 가운데, 당대의 착종적인 어문 상황에 대한 계몽주의적 인식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말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과 언문일치의 문체에 대한 이상적인 지향성을 보이기도 하면서 정인보의 서문과 동일한 민족적 언어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인보 서문과 「서한문강화략초」 사이의 지적 연관성은 이 『시문편지투』라는 척독교본이 일정하게 위당의 문화적 영향력의 자장 안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또한 20년대 근대 척독교본으로서 『시문편지투』가 다양한 문체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척독교본으로서 서만이 아니라 「서한문강화략초」라는 특별한 문장강화 논설을 통해 독특한 문장 지도서적 역할까지 하고 있음을 읽어내 보았다. 추후 척독교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들의 발굴을 통해 척독교본과 문장강화, 독본의 상호 연관성과 근대 조선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해 더 심화된 연구가 촉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자료

- 조선시문연구회, 『新體美文時文편지투』, 1926년 초판, 1930년대 추정본, 서강대학교 소장본 A.
구자황·문혜윤 편, 『新體美文時文편지투』, 도서출판 경진, 2011. 1~279쪽.

2. 논저

- 구자황, 「근대 작문의 계보와 이태준의 『문장강화』」, 『한민족어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2015. 481~506쪽.
남궁원, 「개화기 글쓰기 교재 『실지응용작문법』과 『문장지남』 연구」, 『한문고전연구』 12,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185~211쪽.
정우봉, 「근대계몽기 작문 교재에 대한 연구-『실지응용작문법』과 『문장지남』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8,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151~180쪽.
이지원, 「위당 정인보의 한글 인식과 한글 글쓰기」, 『학림』 48, 연세사학연구회, 2021, 454~490쪽.
홍인숙, 「근대 척독집의 새로운 시도1-『신체미문 시문편지투』」, 『한국 근대 척독서 연구』, 태학사, 2020, 144~174쪽.
_____, 「근대 척독교본 『신체미문 시문편지투』에 나타난 1920년대 ‘청년, 학생’ 정체성 및 관계성의 특징 연구」, 『동양고전연구』 89, 동양고전학회, 2022, 633~661쪽.

ABSTRACT

Characteristics of Modern Chinese Letter Textbooks (Cheokdok)
from a Viewpoint of Sentence Introduction

- Focusing on 「Seohanmunganghwaryakcho (Rhetorical Writing)」 in
『Shincheminun Contemporary Writings Letter Writing Style』

Hong, In-sook

This thesis tries to examin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writings called 「Seohanmunganghwaryakcho (Rhetorical Writing)」 in 『Shincheminun Contemporary Writings Letter Writing Style』 from a viewpoint of sentence introduction essays. 「Seohanmunganghwaryakcho」 is a syntax text which includes basic composition methods, the composition theory, writing's social roles and significance. This writing regards 『Shincheminun Contemporary Writings Letter Writing Style』 a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the book with sentence introduction as well as the simple letter textbook. And the thesis tries to examine 「Seohanmunganghwaryakcho」 as the text which was influenced by Jeong, Inbo's sentence theory by analyzing his preface in 『Shincheminun Contemporary Writings Letter Writing Style』 in detail.

For this, the preface by Jeong, Inbo was first examined. The preface shows the sentence theory and letter theory's directionality pursued by 「Seohanmunganghwaryakcho」 like a completed example. Chapter 1 of 10 chapters of 「Seohanmunganghwaryakcho」 is the general introduction like an independent essay about the origin of languages, letters, and writings. Chapter 2 to 4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methods to present concrete writing techniques, Chapter 5 to 6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rete sentence theory, and Chapter 7 to 10 focus on writings' styles. Like this, it treats the letter theory in earnest.

This 「Seohanmunganghwaryakcho」 is writing to make readers read Widang Joeng, Inbo's efforts to establish the systematic composition

theory and letter theory as the sentence theory made under his academic and cultural influence. Furthermore, it can be thought this tex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king the characteristics of 『Shinchemimun Contemporary Writings Letter Writing Style』 which is the contemporary letter textbook the sentence introduc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trengthening sentences in earnest, not staying at the level of the simple teaching material for letters.

Key Words

Modern Chinese Letter Textbooks (Checkdok), sentence introduction essays, 『Shinchemimun contemporary writings letter writing style(新體美文時文편지투)』, 『Seohanmunganghwaryakcho (Rhetorical Writing)』, modern letter, Widang Joeng, Inbo, reading book, composition methods, syntax text, epistles

논문투고일: 2023.01.24.

심사완료일: 2023.02.07.

게재확정일: 2023.02.08.